

시험관아기 시술도 맞춤형시대

보조부화술 등 시술로 성공률 높인다

건강한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임신소식이 1년이 지나도 없는 경우에는 본인을 물론이고 주변사람들까지 걱정과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불임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전문의사와 상담 후 정확한 원인진단이 된다면 1년 이내에 70~80%는 임신소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연적인 임신시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시술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시험관아기시술 임신성공률은 여성의 연령, 불임원인, 불임기간, 시술기관에 따라 임신성공률이 다르지만 요즘은 착상률이 40%를 상회하는 병원들도 있다. 최근에는 높은 임신성공률을 얻기위해 고 배율 현미경을 이용해 건강한 정자 선별에서부터 수정란, 착상과정에서 특수기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특수기법 동원 착상 성공률 40% 상회 40대 여성 3~4회까지 시도해봐야

◇시험관 아기란

자연적으로 아기를 갖지 못할 경우 부인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고 남편의 정액을 채취한 후 이를 인공적으로 수정시켜 자궁에 이식해 태어난 아기를 말한다.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1978년 영국의 루이스 브라운양이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결혼 후 2006년에는 자연 임신 후 아들을 출산해 영국 남부에 살고 있다.

어떤 부부가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아야하나. 정액 검사상 이상소견(희소 정자증·기형정자·정자운동성저하·무정자증), 배란장애(다낭성난포증후군·황반이상), 나팔관이상(폐쇄), 자궁이상, 자궁내막증, 복강내 유착증, 여성의 나이가 고령, 그밖에 불임치료기간이 오래된 원인불명 불임증이 해당된다.

일반적인 시험관 아기시술 후 임신 착상률은 30~40%이다. 우선 성공적인 임신소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궁상태가 양호해야하며, 시술 후 채취된 난자의 질이나 수정란 역시 양호해야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배아이식술을 시행하는 시술자(의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시험관 아기시술

▲배란 유도과 배란 검사=자연적으로 배란되는 난자는 한 번에 1개이지만 시험관아기 시술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배란유도제를 투여해 많은 수의 난포를 자라게 해야 한다. 배란 유도제는 보통 생리 제 2,3일부터 투여하기 시작하여 난포의 성숙정도에 따라 1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사용한다.

▲난자 및 정액 채취=난포가 성숙되면 마지막 주사(HCG)를 맞고 34~36시간 후 간단한 마취 하에 질 초음파를 이용해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며, 시술은 약 30분 가량 걸리고 난자 채취 후에는 대개 입원 없이 당일 귀가가 가능하다. 남편은 시술 3일 전부터 금욕한 후 시술 당일 정액을 받으면 된다.

▲시험관 내 수정과 배양=채취한 난자를 6~8시간 배양한 후 정액을 특수처리해 운동성이 높은 정자만을 골라 난자가 들어있는 배양접시에 넣어준다. 약 18시간 후에 수정 여부를 관찰하고 2~3일 배양하면 4세포 내지 8세포에 이른 배아를 관찰할 수 있다.

▲배아 이식=난자 채취 후 3일 혹은 5일(수정란이 8세포에서 포배기로 분열했을 때)에 가느다란 관을 자궁 내로 삽입하여 배아를 이식한다. 마취 없이 삽입이 가능하며 시술 후 3시간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 임신 반응 검사는 난자 채취 12일 후에 혈액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레이저 보조부화술(Laser Assisted Hatching)=배아가 자궁 내에 착상하기 전에 투명대를 뚫고 나오는 부화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투명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껍거나 이전의 시술에서 배아상태가 좋더라도 임신에 실패한 경우,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에도 현미경하에 레이저를 투사해 투명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부화를 도와주는 방법이다.

▲비정상 정자와 정상 정자 감별법(MSI)=희소정자증이나 기형정자증 진단을 받은 남성에서 1만배 확대영상의 특수현미경을 사용해 정상정자를 선별,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시열병원 연구원이 병원내 생식의학연구소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고배율의 현미경을 이용, 건강한 정자를 선별하고 있다.

무정자증의 경우, 고환조직에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해 실시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과거에는 수정이 어려웠던 환자들까지도 임신 성공율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됐다.

▲착상 촉진술=태아교(embryonal glu)를 사용해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을 도와주는 시술이다.

시험관아기시술은 여성의 나이가 젊을수록 시술 후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의 나이가 20대인 경우에는 2회 정도,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3회, 30대중반에서 40대까지는 3~4회 정도의 시험관아기 시술과정에서 약 70%정도의 부부만이 임신소식을 듣게 된다. 시술과정에서 임신 결과에 따라 회비가 엇갈리고, 단 한 번의 시술 후에도 임신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술기간 동안 부부는 3회 정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시열병원 최병재 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시했다 큰 코’...만성통증 증상과 치료

2주 이상 지속 병원 찾아 치료 받아야 운동·스트레칭으로 주변 근육 강화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면 딱히 이유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은 종종 ‘피병’으로 오인 받곤 하지만 피병이 아니다. 통증은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황색신호 등이다. 황색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2주 이상 같은 통증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조한수 내과과장으로 부터 만성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만성통증이란? =미국 마취과 학회에 의하면 만성통증은 ‘통증의 기간과 강도가 환자의 기능과 복지에 해로운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세계통증연구학회는 ‘명백한 생물학적 가지 없이 정상적인 조직 치유기간이 보통 3개월을 넘어서서 지속되는 통증’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성통증의 유병률은 20~60%로 추산되고 있으며 여성이 더욱 흔하고 노인일수록 한층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성통증의 증상과 치료법=대표적인 만성통증은 복합부위통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복합부위 통증후군’은 연부

조직의 손상 또는 골절 등 각종 외상을 받은 후 그 손상 부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통증으로 신경손상이 없는 제1형과 신경손상을 동반한 제2형이 있다. 복합부위통증후군은 조직손상의 정도와 통증의 정도 및 범위가 일치하거나 비례하지 않는다. 통증의 성질은 깊은 으니 2주 이상 같은 통증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근막 통증후군’은 어깨, 목, 등, 허리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통증질환으로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서 유발되는 통증후군이다. 우리가 흔히 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치료는 보다 근본적인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른 만성통증의 치료처럼 다과적인 치료가 행해진다. 국소마취제와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통증 유발점에 주사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밖에 약물치료, 열치료 경피

적 자극, 신전 및 분무요법, 심리치료 등이 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인데 대개 피진이 치유된 후 1~3개월 이상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증상은 지속적인 화상성 통증과 박동성이며, 추시는 듯한 통증, 간헐적으로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 등 다양하다.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며 급성 감염기에 국소마취제를 이용해 교감신경 차단을 시행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하고, 피부수포의 건조화 및 신경통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만성통증 질환에는 두통, 요하저통, 경견장지통, 흉배부통, 경견완중후군, 말초혈행장애, 외상성경부증후군, 복부내장통, 설인신경통, 암성통증, 수술후 통증 등이 있다.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조기에 치료를 받아 만성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통증이 있다 해서 활동량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운동과 스트레칭 등을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심근경색,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심뇌혈관센터 오늘 건강강좌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박종준 교수)가 지역사회 주민과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천성가톨릭병원에서 ‘심근경색,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건강강좌에는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가 ‘동맥경화증의 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강의한다.

1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에서 재

활의학과 이삼규 교수가 ‘뇌졸중, 조기재활이 필수입니다’라는 주제로 발병 후 조기 전문적인 환자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또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건강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 비만도, 체성분분석, 건강상담 등의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함께 실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치과병원

印尼 의사를 초청 연수회

조선대 치과병원이 동남아시아 지역 의사들을 초청해 연수회를 갖는 등 의료 관광 및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대 치과정밀장비및부품기술센터(RIC)는 인도네시아 치과의사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과대학에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국제임플란트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국제임플란트연수회는 지난 5월에 이어 2차로 열리는 것으로, 조선대 치과병원의 수준 높은 치과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이 인도네시아 치과의사들에게 전수됐다. /채희종기자 chae@

부작용 거의없이 피부 재생, 탄력 살리고 주름 개선

나이가 들수록 피부조직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간다. 이와 같은 노화현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피부가 처지면서 뺨과 코 옆, 입주변 등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노화현상인 피부 건조증이 더해지면 잔주름이 더욱 악화된다. 물론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피부의 섬유 조직 사이에 들어있는 젤리 상태의 물질인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특히 피부에 직접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피부를 재생시켜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 내 성분으로 피부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개월에 걸쳐 피부내에서 안전하다. 이 때문에 최근 피부진피증이다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사함으로써 얼굴과 목에 생긴 주름을

개선하는 히알루론산 치료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히알루론산은 인체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갖고 있는 점액질 물질로서 특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탄력이 사라지면서 노화현상이 진행 되는 것이다.

히알루론산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주사침 구멍 감염우려와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알레르기)이 있을 수도 있다.

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내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주로 손등, 목 등 전반에 걸쳐 주름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시술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으며 얼굴 전체 시술시 15분 가량, 목 전체 시술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통 2~4주 간격으로 3회 시술받게 된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

히 피부와 관절, 연골 등에 많이 분포한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맑고 투명한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데, 나이가 들면서 히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